지니의 한국 사는 이야기
'나는야 1.5세 아줌마'

끼리끼리 논다

어릴 적에는 잘 몰랐으나 살다 보면 이 세상 어딘가에는 나와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학교, 직장,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하며 흠칫 놀랐지만 신기하게도 내 주변에는 대부분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또 아무렇지 않은 듯 편안한 일상을 유지하며 살아간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놀랐던 기억 중 하나는 이렇다. 너무 충격적이라 이 주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거론하기도 했었다(물론 더 충격적인 사이코패스, 범죄자, 파렴치한 등은 아예 배제하고). 때는 바야흐로 15년 전쯤으로 그때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대신 카페 형식의 SNS가 각광받던 시절이었다. 나도 우리나라 대표맘 카페에 가입하여 자주 카페에 올라오는 게시글들을 들여다보곤 했는데 하루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해요" 라는 게시글이었는데 이야기인즉슨 첫 아이 임신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복숭아를 한 박스 보내주셨다고 한다. 그런데 박스를 열어보니 상한 복숭아가 몇 개 있었다는 것이었다. 임신 중에는 일부러 예쁜 것만 골라 먹는 거라던데 어떻게 이런 복숭아를 보내주실 수 있는지 너무 섭섭하다고 했다.

이런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사실도 내게는 너무 황당무계했지만 그 밑에 달린 수십 개의 댓글을 보고 나는 기함을 금치 못했다. 댓글이 하나같이 "시어머니 정말 너무 생각이 없으시네요. 시어머니가 너무 하셨어요.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저라도 화날 것 같아요" 하며 게시자를 두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게시자를 위로하기 위한 처사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하게 공감하는 댓글들을 보며 나는 그만 아찔해졌다. 와... 이거 정말 나만 생각이 다른 거야?

아니 시어머니가 임신한 며느리 먹으라고 복숭아 보내주셨으면 그걸로 되었지... 배송 중 복숭아가 과숙되어 변질이 되었거나 손상된 것까지 시어머니 책임이라는 것인가? 이런 게 왜 논란의 여지가 되는지 솔직히 나는 지금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냥 게시자가 임신 중이었던 것을 고려하여 호르몬의 여파로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게 어려웠던 게 아닐까 어렴풋이 생각할 뿐이다.

이제는 카페 활동은 거의 안 하지만 요즘에도 SNS로만 교류하는 일부 사람들이 올리는 포스트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못해 불편하고 불쾌한 마음까지 생기면 슬며시 친구 끊기를 선택하기도 한다. 지금도 친구를 끊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이 되는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은 정말 애매한 선을 왔다 갔다 한다. 그녀는 아마도 나와 비슷한 또래인 것 같다. 작은 회사의 대표이고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이기도 한 그녀는 거의 매일같이 포스팅을 하는데 주제는 거의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셀카로 외모 뽐내기인데 거의 매일같이 올린다. 감탄할 정도의 미모는 아니나 외모에 대한 자존감은 꽤 높아 보인다. SNS로 외모를 뽐내는 것은 워낙 흔한 일이다 보니 별로 특별할 것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그녀의 셀카 각도는 조금 신경 쓰이기는 한다.

두 번째로는 사업 이야기인데 보통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 인재인지를 어필한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싶다.

마지막으로 신세 한탄인데 이 부분이 제일 이해하기 힘들다. 그녀는 워킹맘으로 힘들게 자녀를 키우는 부분을 가장 많이 어필하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밤까지 일했고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도 자식은 내 마음을 1도 몰라주고 망나니 짓을 하고 가족들마저도 속을 박박 긁는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도 충분히 있을법한 이야기. 그럼 수많은 댓글들이 쇄도하기 시작한다. "너무 힘드시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버티세요? 눈물 나네요. 그래도 힘을 내세요." 와 같은 위로와 응원의 내용들이다. 그러면 그녀는 "그렇게까지 힘든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나약한 사람은 아니니 위로까지는 사양합니다." 하면서 살짝 기분 나쁜 뉘앙스의 댓글을 남기기 시작한다. 거의 이틀 건너 하루꼴로 장문의 하소연을 올리면서 사람들의 위로는 거부한다? 그렇다면 그녀는 그저 공개 일기를 쓰고 있는 것일 뿐인가?

어쨌든 가끔 이렇게 나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우리는 심지어 나이, 성별, 혈액형, 별자리, MBTI 등이 다르지만 썩 잘 이해하며 어울리고 있으니 말이다. 어쩌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과 잘 맞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동물적 감각이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지금까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내 상식선에서는 크게 어긋남이 없기 때문이다. 나의 기준이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서로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일은 거의 없으니깐.

예전에 모교사랑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수많은 초중고 동창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았었다. 10년씩 연락이 끊겼던 초등학교 동창생들을 다시 보니 반갑고 감회가 새로웠지만 몇 차례 만남 이후 대부분 다시 또 멀어졌다고들 한다. 몇 번 만난 후에 "지난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이유가 있구나. 역시 우리는 잘 맞지 않아" 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긴..... 잘 맞는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든 계속 연결이 되었겠지. 결국 사람들은 끼리끼리 놀게 되어있으니깐...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 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REDPOINT REALTY

"정상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
아이비가 하면 틀림없습니다.

" 지금이 집을 파실 기회입니다."

탑에이전트 아이비와 리스팅을 하시면 아래의 혜택이 함께 덤으로 옵니다

01 무료 인스펙션 Free Inspection
02 무료 집수리 Free Handyman Work
03 무료 집단장 Free Staging
04 무료 감정 Free Appraisal
05 무료 보험 Free Home Warranty
06 무료 창고 제공 Free Storage
07 무료 터마이트 검사 Free Termite Inspection
08 후불제 페인트 Paint(pay when close escrow)

최근 판매한 매물들

780 W Rosslynn AVE FUL	$950,000
8062 Ainsworth LN La Palma	$1,350,000
5320 Buck Hill AVE Buena Park	$2,000,000
11762 Lakeland RD Norwalk	$740,000
120 Gemstone Irvine	$1,385,000
11433 Excelsior DR #A NorWalK	$600,000
5409 Arrowhead AVE Buena Park	$900,000
988 Glendora Dr. Oceanside 92057	$825,000
1661 Interlachen M11-286B Seal Beach	$265,000
4559 Toledo WAY Buena Park	$581,000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3110 Cochise WAY #102 Fullerton	$473,000
7770 Youngdale WAY #D Stanton	$450,000
5087 Argyle DR Buena Park	$500,000
1001 W Lambert RD #169 La Habra	$210,000
629 Drake AVE Fullerton	$893,000
6045 Barry DR Cypress	$960,000
3143 W Lincoln AVE Anaheim	$659,000
596 Escenico Lake Forest	$1,085,00
2615 Tuscany WAY Fullerton	$1,607,000
6495 Saipan ST Cypress	$1,002,540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이비
VICE PRESIDENT
Member of NAR, CAR, PWR
CalDRE#: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